

200억짜리 청다오aT물류공사 4년 연속 적자

매년 수십억원 손실에도 운송비·보관료 지원

“신선농산물 1만t 수용 성격에 맞게 개선해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중국 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청다오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투입 100% 자회사인 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2011년 설립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해 현재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상해현대아륙국제화운유한공사에 물류센터의 위탁경영을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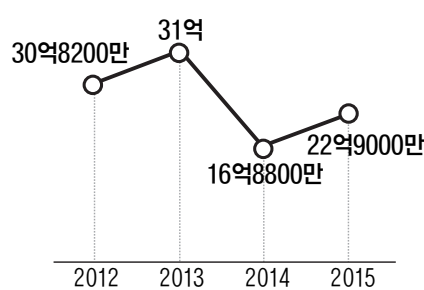
청다오aT는 설립 이후 운영 지연으로 지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이 회사는 2012년 30억8200만원, 2013년 31억원, 2014년 16억8800만원, 2015년 22억9000만원의 적자를 매년 기록했다.

특히 청다오aT는 이같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에게 운송비와 보관료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

■청다오aT물류유한공사 적자 추이

(단위:원, 박완주의원실 제공)



됐다.

또 위탁경영을 맡기면서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현대아륙과 연간 7억 2900만원의 계약을 맺은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혈값에 회사 경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5~7월 청다오aT가 지원한 운송물품도 대부분 유제품·커피·아이스크림으로 신선농산물은 찾기 힘들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설립 취지에 맞



지난해 8월 열린 ‘청다오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 개소식 장면.

〈aT 홈페이지〉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다오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는 연면적 1만3669㎡(4142평)의 규모로 냉동, 냉장, 상온 시스템을 모두 갖춘 창고(1만1614㎡) 및 사무동(1831㎡),기타 부속

동(225㎡)으로 구성돼 있다. 1만2000t 수준의 물량 보관이 가능하고 청다오 청양구 류팅공항 산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류팅 공항으로부터 4km, 청다오 중심가로부터는 2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은 28일 열린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역산업 진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박권식 한전 상생협력본부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한전 제공〉

한전 에너지밸리, 지역발전 공로 인정

지역희망박람회 대통령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역산업 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로 154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전은 지난 28일 경기도 일산 컨텍스트에서 열린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역산업 진흥 공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2014년 12월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한전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며 에너지 기업 유지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을 상반기까지 133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6521억원의 투자와 4530명의 고

용창출 효과를 내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또 36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 등을 꾸준히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융화 및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모국방문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도 펼쳐 지역사회에 두터운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역 상생의 토대위에서 기업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과 상생발전 모델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쌀빵·쌀라면 보급해 쌀과잉 해소”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밝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을 과제별 융복합 연구팀으로 재편해서 내년까지 꼭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팀은 반드시 보상할 생각입니다.”

정황근(사진)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내 농촌진흥청 청사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가루 활성화 ▲스마트팜 ▲반려동물 ▲발효농업기 계와 ▲곤충 및 식·의약 등 5가지 과제를 ‘톱(Top) 5 융복합 프로젝트’로 선정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정 청장은 “기존에는 개별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넓게 보는 융복합이 중요하다”며 “기술을 실용화·사업화하고 널리 알리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와 승진, 승급 등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절반은 홍보’이고, 개발한 기술을 널리 알리는 것은 자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30분 넘게 강조했다”며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관련 “쌀 재배면적은 매년 2%씩 줄고 있지만, 쌀 수요량은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4년째 유례없는 대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쌀은 질소비료 투입을 줄여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밥맛이 더 좋은 고품질 쌀을 재배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성을 지닌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를 개발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며 “밀처럼 세분구조가 둥근 쌀 품종을 개발하고 도정기계도 개발하고 떡, 국수, 과자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쌀빵, 쌀라면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잘 하는 직원들에게 운영비 지원하고 포상과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 대책과

한전 ‘SW융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서비스·요금·송배전 등 개선책…내달 13일까지 접수

한국전력이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

한전은 우선 전력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해결 대안을 모으는 클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기반 플랫폼을 10월 중 오픈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사업 첫단계로 총상금 1100만원을 내건 ‘SW융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한전 클라우드 소싱 시스템에 접속해 다양한 아이디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분야로는 서비스·요금·송배전 등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과 국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에너지 복지 제공 방안, 에너지신사업 및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수익모델 및 솔루션 제시 등이다.

또 전기품질, 요금, 서비스 만족도, 불만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한전의 인식차이, 내부 문제점 등에 대해 되짚어 보고 향후 요금제 및 영업정책 개발 때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참여는 10월 말부터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를 통해 가능

하며, SNS(페이스북)와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을 포함해 전국의 일반인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W융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에너지와 SW융합기술 아이디어로, 일반부는 에너지신사업, 드론 등 지역전략산업, IoT,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ICT 기반의 SW융합 신제품과 신기술이다.

학생부는 소프트웨어와 생활 속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모 홈페이지(www.jci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예선을 거쳐 선정된 16개 팀·개인을 대상으로 본선심사를 통해 11월 1일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행사기간에 시행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PS, 품질만족지수 5년 연속 1위

발전정비 기술자립도 높여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5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매출 대비 약 5%의 R&D 투자로 로봇 자동화기술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외 정비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력 설비의 고품질 책임정비를 수행하여 국내 발전설비 이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고객자문위원회, 고객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과 고객과 정기적 소통 채널 운영 등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최외근 사장은 “발전설비의 전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력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전KPS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정비 기술자립도는 우리의 긍지이자 자부심이다”면서 “앞으로도 한전KPS는 전력설비의 가동률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는 물론 공익 기업으로서 사회 책인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KPS는 ‘국가품질경영대상’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과 ‘품질경영력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 등 국내 최초로 ‘품질경영 혁신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오광록기자 kroh@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양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주왕봉 전봉황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